

1등급을 위한 국어 파이널 대비 방법

진짜로 절박하다면, 한 달 동안이라도 미친듯이 해보자 지금 한 달 미쳐서 공부하는 게 앞으로 너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.

이 글은 문제풀이 스킬, 문제 푸는 법, 빠르게 글 읽는 법 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런 걸 바란다면 다른 곳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어서 지름길만 찾아가고 스킬에 끌리다 보면,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겁니다. 그러니 **급할수록 천천히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.**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능 전 날까지 미친듯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

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기 전에 자기가 봤던 시험지를 펼쳐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먼저 찾아보길 바랍니다. **점수가 낮은 학생들 대부분의 특징이 자기의 약점, 부족한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.** 스스로 체크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겠습니다.

1. 화법과 작문을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린다.
2. 화법과 작문을 풀 때, 정답이 확실하지 않다.
3. 문법에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.
4.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간다.
5. 문학 문제를 풀 때, 정답이 확실하지 않다.
6. 시간이 부족해서 비문학 한 지문은 그냥 날린다.
7. 80분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흐트러진다.
8. 제대로 된 전략 없이 1~45번을 번호 순서대로 쪽 진행한다.

3등급 이하 학생들의 대다수는 8가지에 다 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대로 된 개념이 부족하고 80분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부족하고, 국어를 바라보는 태도가 정립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제대로 기출 1회독도 안 한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시기에 뭘 해야 할 지 몰라서 EBS만 파고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. (EBS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전략 없이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)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면,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쯤에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, 저는 재수를 결심하고 3월부터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기출 분석만 죽어라 했습니다. 19학년도~10학년도 까지의 기출을 5회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,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, 나의 문제점을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본 결과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과 거의 유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후 진짜 제대로 된 기출 정리와 마무리 행동 정리를 한 결과 수능에서 96점을 받았습니다.

사실, 국어 시험에서 평가원은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스킬, 문제 푸는 법 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제한된 시간내에 누가 더 집중해서 글을 잘 읽어내는가,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기가 4등급이하라 할지라도 태도만 잘 갖추고 있으면,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국어 과목이고 그게 국어 과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.

**그리고 제발 어렵다고 쫓지 마세요.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들 어려워할 겁니다.
그냥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세요!!!!**